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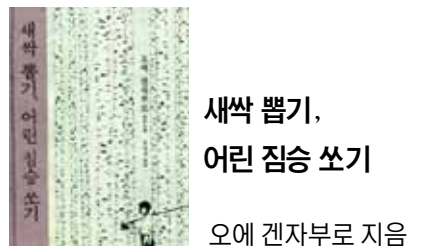
사랑과 내면의 기록 9편

이상문학상 작가 전경린이 네 번째 소설 집 '천사는 여기 머문다'를 펴냈다. '물의 정거장' 이후 11년 만에 내놓은 신작 소설 집은 전경린 문학의 정점이라고 할 만큼 완성도가 높다.

그동안 여성적 감각과 개성적인 문체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일구어 온 작가는 이번에도 예의 '생각자처럼 아닌' 문체를 선보인다. 책에는 2004년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한 '여름 휴가', 2007년 이상문학상 수상작 '천사는 여기 머문다 2' 그리고 2011년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강변마을' 등 모두 9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전경린이 그리는 사랑은 통속의 잣대로는 잡재울 수 없는 '존재의 비명'과도 같다. 9편의 단편은 각기 다른 '사랑'과 '내면의 기록'을 특유의 세밀한 문체로 그려낸다. 인생은 지리멸렬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경이로움과 환희가 넘쳐난다.

〈문학동네·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어른들에 뽑힌 새싹들 세계

"이 소설은 내게 있어 가장 행복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탈핵 운동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 운동 등을 통해 최근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의 첫 장편소설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쓰기'가 번역, 출간됐다.

집단적인 광기와 살인의 시대였던 태평양전쟁 말기, 갑화원 소년들은 가족에게까지 외면당하고 산골짜기 벽촌에 맡겨진다. 그러나 전염병의 징후가 감돌자 마을 사람들은 소년들을 버려두고 피난을 가면서 마을을 폐쇄해버린다. 이제 갓 10대를 넘어서 소년들은 해방감보다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만 함께 남겨진 피난민 여자아이, 조선인 마을의 소년, 탈영 군인들과 함께 그들의 세계를 꾸려나간다. 그러나 순수한 인간애와 의리로 만들어가는 소소한 행복은 결국 시한부일 수밖에 없는 데...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화려한 그라운드 이면의 추악한 '축구 정치'



피파 마피아

토마스 키스트너 지음

"축구장에서 공 하나를 놓고 치고 달리며 순수하게 힘만으로 승부가 겨뤄진다고 믿은 것은 정말이지 순진한 환상이었다. 그 배면에서는 온갖 추악한 탐욕과 거래가 한바탕 난장판을 이룬다. 이 난장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혹시 경기를 경기로 즐기지 못하는 우리의 맹목적인 열정 역시 한몫 단단히 거두고 있지 않을까?"

마침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막이 올랐다. 월드컵 축구를 학수고대했던 팬들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 월드컵에 부정적인 이들은 지구촌 최대의 '마피아 잔치'라고 비난한다.

국제축구연맹 부패 실상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 나왔다.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온전히 월드컵 경기를 즐기기가 어려울 듯하다. 스포츠 정치 분야 탐사전문기자인 독일 출신 토마스 키스트너가 쓴 '피파 마피아'는 지구촌 축구 행정에 드리워진 어둠과 추악한 일면을 낱낱이 파헤친다.

더욱이 이번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벌어졌던 자국민들의 시위, 2022년 카타르 개최지 선정 의혹 등은 지구촌 축제를



FIFA 검은 거래·탐욕·폐쇄성 낱낱이 파헤쳐

만양 즐길 수만은 없게 한다. 그동안 피파(FIFA·국제축구연맹)와 관련된 부패 혐의는 각국의 언론을 달군 소재 중 하나였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피파 조직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 어느 누구도 피파 회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월드컵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지만 지출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은 회장 자리를 매개로 오가는 뇌물,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금품 수수설의 원인이 되었다.

한때 공 하나면 충분했던 세계인의 잔치는, 금권을 놓고 벌이는 사기행각으로

변모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따른다. 공은 둥글지만 축구 행정은 추악한 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의미다.

책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피파의 현 회장 제프 블라터, 전 회장 중앙 아벨란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회장 사마란치와 지크 로케 등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은 인물들이 나온다.

저자는 피파와 IOC 회장단, 사무총장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한 인물을 만나게 된다고 본다. 바로 현대 스포츠 마케팅을 구축한 호르스트 다슬러. 아디다스 창업주의 아들이며 수영용품 제조업체 아레나를 창립한 호르스트 다슬러가

세계 스포츠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피파가 부정적인 '마피아' 이미지로 전락한 것은 이권을 최고로 생각하는 비즈니스 관점 때문이다. 경제계의 막강한 스폰서들은 월드컵이라는 상품 앞에 '울'이 될 수밖에 없다.

유치를 위한 각국의 과잉 경쟁도 문제다. 당연히 피파는 이를 빌미로 막대한 혜택을 요구했고, 각 나라들은 이를 묵인 방조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디어 행태는 어떤가. 시청자를 열성적인 팬으로 바꿔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 무엇보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너무나 강렬해 축구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마비시킨다.

갈수록 피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자는 월드컵을 사랑하는 이들도 맹목적인 숭배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돈벌이에만 급급한 기업들 행태,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야심가들, 지나친 민족주의 성향도 자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천의 말을 쓴 정운수 스포츠문화평론가는 "우리는 언제나 그라운드의 혈투에 몰두한다. 그라운드 위의 저 귀빈석에서는 글로벌 축구 정치가 벌어진다. 그라운드의 혈투보다 더 격렬하다"며 '피파 마피아'에 대해 질타를 가한다.

〈돌베개·2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플라톤부터 지젝까지... 쉽게 간추려 쓴 동서양 철학



짧고 깊은 철학 50

통 버틀러 보던 지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누구나 사는 동안 한번쯤은 고민했을 내용이다.

철학은 그 자체로 맑은 아니지만 살아가는 용기를 준다.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가치 있게 사는 법을 알려준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으며 일상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명저를 묶어낸 통 버틀러 보던이 '짧고 깊은 철학 50'을 펴냈다. 저자는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의 슬라보

예 지젝까지 동서양 철학의 명저 50권, 철학자 50명을 간추려 소개한다.

저자는 철학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이해하기 쉽고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철학 사조를 해설하거나 '학파'와 '주의' 등의 기준을 멀리하고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초점을 뒀다. 책의 차례를 연대기 순이 아닌 원제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이유다.

공식적인 학문 분야로서 철학의 역사는 그리 긴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사상은 2000년 넘게 적잖은 울림을 준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철학은 살아 숨 쉬며 인간 실존의 토대와 근거가 된다. 2000년 전 질문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달라졌을 뿐이다.

〈흐름출판·2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대도시에서 '배움의 공동체'는 가능할까



마을로 간 인문학

김영선·이경란 엮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가르치는 배움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서울 마포에서 이뤄지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 '마을배움@네트워크 판'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마을공동체'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사례 '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마을로 간 인문학'이 나왔다.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없을까, 세상을 이해

하고 나를 돌아보기 위한 인문학 강의를 부담 없이 들을 수는 없을까'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마을배움@네트워크 판'은 '배움'이란 뚜렷한 목표 아래 20여 년간 함께 모여 만든 교육 네트워크다.

이야기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20여 년에 걸친 마을교육의 경험과 최근의 지역 교육 현실, 마을에서의 배움을 네트워크로 재구성한 '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들의 이야기다.

또 하나는 배움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때 사람들의 세계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인문학적 접근이다. 이를 '마을인문학'이라 부른다. 책은 '판' 운영위원 이경란과 김영선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엮었다.

〈당대·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SINCE 1990

# 이태리 가구 전문점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